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姜 榮 宣\*\*

## 목 차

- I. 서론
- II. 뜻풀이 원칙
  - 1. 體系性
  - 2. 正確性
  - 3. 簡潔性
  - 4. 容易性
- III. 결론

## I. 서론

국어사전의 뜻풀이는 표제어 문제와 함께 국어사전의 2대 구성 성분을 이룬다.<sup>1)</sup> 하트만도 “사전 제작에서 기본 단위는 어휘소(lexeme), 또는 어휘 단위(lexical unit), 즉 형태와 의미의 긴밀한 결합체”<sup>2)</sup>라고 했다. 곧 언어 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소, 즉 표제어들을 선정·배열하는 것과 뜻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임을 언급한 말이다. 사전 이용자들은 일차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사전 이용자들에게 가장 표준적이고 규범적이며 언어생활의 길잡이 구실을 할

\* 이 논문은 강영선(1998), “국어사전의 뜻풀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25. 2. 뜻풀이 원칙을 바탕으로 논의되었음을 밝혀 둔다.

\*\* 제주대 교육대학원

1) 정순기·리기원(1984), 『사전편찬이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북한어학 자료총서』, 411(1989), 탑출판사.] p.9.

2) R.R.K. Hartmann(1983), “Theory and Practice in Dictionary Marking”,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R.R.K. Hartmann, ed.), London: Academic Press. pp.4~11.

수 있는 바람직한 국어사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국어사전들이 뜻풀이를 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잘못을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 국어사전들의 뜻풀이 문제점에 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단편적 또는 체계적으로 언급이 되어 왔다.<sup>3)</sup> 기존 국어사전들이 뜻풀이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음은 그 동안 사전 편찬자들이 뚜렷한 뜻풀이 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뜻풀이를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리고 뜻풀이 원칙을 마련하더라도 그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뜻풀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뜻풀이 원칙에 관해서 살펴보는 일은 바람직한 뜻풀이를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 II. 뜻풀이 원칙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 우선 기존 사전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 뜻풀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이 순서이다. 기존의 사전들이 채택하고 있는 뜻풀이의 원칙은 사전의 첫머리에 있는 '일러두기'에 제시되고 있다. 사전별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된 '보기'는 생략함.]

### (가) 새우리말큰사전<sup>4)</sup>

\* 풀이<sup>5)</sup>

- 3) 강영선(1998), 『국어사전의 뜻풀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9~15. 참고. 여기에서 필자는 그 동안 이기동(1987), 이상복(1988), 심재기(1989), 이익환(1992) 등에 의해 제기된 표제어 뜻풀이의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① 순환성의 문제, ② 뜻풀이의 난해성 문제, ③ 뜻풀이 항목의 배열 순서 문제, ④ 잘못된 뜻풀이와 표제어 선정의 문제, ⑤ 용례 제시의 문제로 정리하여 설명한 바 있다.
- 4) 이 연구에서 주로 인용되는 사전들은 신기철·신용철 편 『새우리말큰사전』,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한글학회 편 『우리말큰사전』,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 『금성판 국어대사전』, 이기문 편 『동아 새국어사전』 등이다. 이 5종의 사전을 텍스트로 선택한 이유는, 『국어대사전』과 『새우리말큰사전』은 가장 널리 애용되는 국어사전이며, 『우리말큰사전』은 순수 국어사전의 모델을 제시했으며, 『금성판 국어대사전』은 신정서법 적용·어원 최초 제시·여러 작품에서 수집한 용례 제시 등 다른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1. 어휘의 풀이는 소략(疏略) 추상에 흐르지 않고 정확한 독립적 개념을 잡아 과학적인 방식으로 뜻을 간명하게 쉬운 말로 밝히기에 힘썼다.
2. 말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풀이 끝에, 동의어·예문·삼화도 많이 실어, 익히기에 편하도록 했으며, 준말·원말·변한 말·사투리·센말·거센말·상대말·반대말·취음·참고어·큰말·작은말·높임말·낮춤말 등의 관계도 밝혔다.
3. 동의어 및 원말·변한 말·준말 등은 따로 풀이하지 않고 주된 말에서 찾도록 표시했다.
4. 변칙 용언은 원칙적으로 변칙 부호와 끝바꿈의 예를 보이되, ‘-스럽다’·‘-하다’와 복합되거나 파생된 말은 변칙 부호만을 보였다.
5. 말뜻이 여럿으로 갈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것, 어원에 가까운 것부터 ①②③의 번호를 붙여 열기(列記)했으며, 더욱 세분(細分)할 경우에는 ㉠㉡㉢의 부호를 썼다. (하략)

### (나) 국어대사전

#### \* 해석의 방식

1. 어휘의 풀이는 소략(疏略) 추상에 흐르지 않고 정확한 개념을 잡아 쉽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렸다.
2. 어휘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풀이 끝에 동의어(同意語), 용례(用例), 변한 말, 준말, 어감의 강약과 대소, 상대어, 참고어 등을 밝혔다.
3. 한 어휘의 뜻이 여럿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원에 가까운 것 또는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①②③...의 순으로 벌였다. 또, 한 표제 항목(標題項目)을 둘 이상의 품사(品詞)로 나누어 해설할 때에는 각각 그 품사 표시 앞에 ㉠㉡...의 번호를 붙였다.

국어사전들이 지니지 못한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아 새국어사전』은 휴대용이지만 국어학자가 직접 감수하고 대사전적 체계를 따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사전 전반적인 것을 볼 때 다른 휴대용 사전(중사전)들보다 정보 표시에 충실하고 있어서 既刊된 국어사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사전들에 대한 비교·검토는, 김문창(1994), “국어대사전 편찬”, 『새국어생활』 제4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pp.8~35, 참고.

중사전들에 대한 비교·검토는, 김슬옹(1993), “어휘 평가에 따른 고교생용 사전 활용의 문제점”, 『함께 여는 국어교육』 제16호, 전국국어교사모임, pp.45~74, 참고.

- 5) 이 소제목은 각 사전마다 뜻풀이 원칙을 밝히고 있는 일러두기의 ‘소제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4. 동의어에는 일일이 주석을 붙이지 않고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을 풀이하여 그 곳에 가보도록 하였다.
5. 원말과 변한 말에 있어서도 그 중 하나에만 주석을 달았다. : \*널리 쓰이는 말에 뜻풀이를 하였다.
6. 원말과 준말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원말에 주석을 달았다. (하략)

(다) 우리말큰사전

\*뜻풀이

- (1) 기본 뜻을 앞세우고 번져 나간 차례로 ①②③ ...의 갈래를 보인다. 뜻의 갈래가 복잡한 경우는 먼저 I, II, ...로 큰 갈래를 보이며, 또한 기본 뜻갈래에 포함되면서도 약간의 다른 특징을 띠는 경우에는 ㉠㉡...으로 나타낸다.
- (2) 한뜻말의 뜻풀이
  - ㄱ. 표준말과 표준말: \*뜻풀이를 보인 말을 제시하여 찾아보도록 한다.<sup>6)</sup>
  - ㄴ. 준말과 본말: \*본말에 뜻풀이를 하고 준말을 보인다.
  - ㄷ. 원말과 변한 말: \*널리 쓰이는 변한 말에 뜻풀이를 하고 원말을 보인다.
  - ㄹ. 한자말· 들은말 들과 우리말: \*우리말을 중심으로 뜻풀이하고, 들은말로는 한뜻말을 보이지 않는다.
  - ㅁ. 표준말과 표준말 아닌 말  
사투리는 '→'표로 그 표준말을 가리켜 주거나, 표준말이 없는 사투리는 뜻풀이를 하고 그 지역을 도 단위로 밝혀 준다. 이때 전국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투리는 지역 밝히기를 생략한다.
  - ㅂ. 변말, 결말, 속된말, 낮은말 따위: \*표준어를 제시하고, 변말, 결말, 속된말, 낮은말 따위를 밝힌다.
  - ㅅ. 잘못 쓰는 말, 쓰지 말아야 할 들은말 따위: \*→표로 표준어를 찾아가도록 한다.
- (3) '~하다' 풀이써 따위의 뿌리.
  - ㄱ. 종래 이름씨로 다루어 온 '한자말-하다' 꼴 그림씨의 뿌리와 서양말들 가운데 자립성이 없는 것은 이름씨로 다루지 않고 뿌리로 다룬다.
  - ㄴ. 종래 이름씨로만 풀이하고, '~하다' 파생 움직임씨를 풀이 끝에 형태만 보이던 것을 이름씨와 아울러 '~하다' 파생 움직임씨도 기본 올림말 자리에 다루도록 한다. 다만, 뜻풀이는 그 뿌리인 이름씨에 바로 기댈 수 있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고, 그 이름씨에 '가보라'는 표(⇒)로 대신한다.

6) \*는 '보기'만을 제시하여 뜻풀이 방식을 밝히고 있는 것을 필자가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 (4) 그 밖

- ㄱ. 풀이하는 월의 마침은 이름풀(‘-ㅁ, -음’)로 하되, 둘째 월 이하는 배품풀(‘-다’)로 한다.
- ㄴ. 입음풀, 하임풀의 풀이도 ‘~을 당하다, ~게 되다/ ~게 하다’ 따위로 일반스럽게 풀이한다. (하략)

### (라) 금성판 국어대사전

#### \* 풀이

#### 2.1. 풀이 원칙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하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핵심을 찌르도록 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막연하거나 너무 한정적이어서 편협하지 않도록 정보의 수위를 적정하게 하였다. ‘양말’을 ‘서양식 버전’으로 묘사하는 식의 한 시대 전의 표현법을 청산했고, ‘양복’을 ‘서양식 의복’으로만 묶어 놓는 시대 착오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 2.2. 갈래

##### 2.2.1. 품사의 갈래

한 표제어 안에서 품사가 둘 이상일 때는 I, II, III,……으로 갈랐으며, 같은 품사이 나 종속 단위로 나뉠 때에는 1, 2, 3,……으로 갈랐다.

##### 2.2.2. 뜻 갈래

한 어휘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때에는 ①, ②, ③,……으로 가르되, 사용 빈도가 높은 것, 또는 역사적으로 근원이 된 것부터 배열했다. (하략)

### (마) 동아 새국어사전

#### ■ 어의(語義) 풀이

- 뜻 갈래: 말뜻의 갈래가 여럿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의(本義)를 먼저 풀이한 다음, 전의(轉義)·파생의(派生義)·변의(變義)의 차례로 늘어놓았다.
- 본의(本義)와 전의(轉義): 본의로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그 전의(轉義)나 변의(變義)가 널리 쓰이는 단어는, 본의를 [ ]로 묶고 전의 또는 변의를 내세웠다.
- 고사(故事)나 뒷이야기를 가진 말은, 그 고사나 뒷이야기의 대강을 말하여 개념 파악에 깊이와 정확성을 더하게 하였다.
- 용례(用例): 말뜻 풀이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적절한 용례를 들어 그 말의 생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 동의어(同義語)의 풀이: 동의어가 여럿인 경우 일일이 풀이하지 않고 그 대표적인 표제어에서 풀이하였다.

- 분야 또는 시기 표시: 표제어나 말뜻의 갈래가 어떤 특수한 분야(부문)나 시대(시기)에 국한될 경우에는 풀이 앞에 그것을 밝혔다.  
[곧, '조선 때, 고려 때, 지난날, 불교에서, 기독교에서, 한방에서' 따위.]
- 관련어(關聯語): 말뜻 풀이 끝에는 여러 가지 관련어(동의어·유사어·상대어·큰말·작은말 등)를 보이어 사전의 활용도를 높였다. (하략).

(바) 조선말대사전<sup>7)</sup>

5. 뜻풀이

1) 뜻풀이의 기본 원칙과 일반 준칙

(상략)<sup>8)</sup>

- ③ 올림말에 대한 뜻풀이는 간결하고 알기 쉽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올림말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풀이하도록 하였다.
- ④ 뜻풀이에서는 문화어의 뜻체계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대사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쓰이지 않는 낡은 뜻도 일정한 전제 밑에 다 밝혀 주도록 하였다.
- ⑤ 사회 정치 용어와 일부 과학기술 용어들은 그 본질적 내용 또는 개념을 정확히 풀이한 뒤에 필요한 보충 풀이를 덧붙여 주었다.
- ⑥ 고사와 유래가 있는 한자 성어와 속어 및 성구, 속담은 그 고사, 유래와 의미적 근거를 밝혀주면서 그 뜻을 풀이하였다.
- ⑦ 한 올림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날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적극적인 뜻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미 발전의 과정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차례로 뜻배열을 하였다.

2) 뜻풀이의 방식

- ① 올림말에 대한 풀이는 원칙적으로 뜻같은말로 대치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뜻의 기본 표식을 잡아 직접 풀이를 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뜻이 꼭 같은 뜻같은말에 대하여서는 그 중 하나에 풀이를 주고 다른 것은 풀이한 뜻같은말과 런계를 지어 주었다.
- ② 한 단어 안의 여러 뜻은 수자를 부호 ○ 안에 넣어서 갈라 주었으며 아직 옹근 뜻으로까지 갈라지지 않은 뜻은 같은 번호 안에서 부호 D로 갈라서 주는 방식을

7) '(바)조선말대사전, (사)조선말사전, (아)朝鮮語大辭典'은 이 연구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뜻풀이 원칙을 우리 국어사전들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참고로 인용하였다.

8) '①, ② 항목'은 주제사상과 관련지어 뜻풀이 원칙을 설명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썼다.

- ③ 단어의 뜻과 쓰임을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하여 올림말이나 개별적인 뜻이 일정한 시기 또는 일정한 부문에만 한정되거나 일정한 문체론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필요한 전제 또는 특성을 풀이의 앞과 뒤에 달아 주었다.
- ④ 명사말뿌리와 <하다>, <되다>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동사가 새 뜻을 가지지 않을 때에는 풀이를 주지 않았고 명사말뿌리와 하다가 어울려서 이루어진 형용사는 풀이를 주고 그의 어근적 단어는 <<○○하다>의 어근적 단어>라고 준 것으로 풀이를 대신하였다.
- ⑤ 여러 개의 뜻을 가진 올림말에서 뜻 파생의 갈래가 다르거나 문법적으로 서로 다른 부류에 속하는 뜻은 I, II, III, IV 등으로 크게 갈라 주는 방식으로 풀이를 하였다.
- ⑥ 올림말의 뜻풀이가 끝난 뒤에 필요한 경우에 뜻같은 말 또는 반대말을 주었다. 이때 그 뜻같은 말이나 뜻반대말 앞에 부호⑥, ↔를 붙이었다.

### (사) 조선말사전

#### 3. 올림말의 뜻풀이

- ① 뜻풀이는 일반적인 뜻을 쉬운 말로 간결하게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설명을 가할 때에도 되도록 간결하게 주기에 힘썼다.
- ② 사회력사적 배경을 달리할 수 있는 일부 단어의 뜻풀이는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뜻을 기본으로 하여 풀이하는 원칙을 취하였다.
- ③ 올림말의 뜻과 개념은 오늘날 표준어에서 쓰이고 있는 기본적인 뜻을 주면서 중국에서의 조선어사용실정에 맞게 풀이하였다.
- ④ 한 올림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경우에는 ①, ②, ③...으로 갈라서 풀이하되 본의를 앞에 놓고 뜻풀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의가 우리의 언어 생활과 떨어져 소극화되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의 뒤에 놓고 풀이하였다.
- ⑤ 뜻갈래가 복잡한 단어에서 몇 개의 중심적인 뜻이 갈라질 때에는 I, II, III...으로 갈라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 ⑥ 뜻이 같은 단어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에서 뜻풀이를 하고 그 밖의 단어들은 <⇒>로 보낸 단어에 가서 뜻풀이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뜻풀이를 한 단어의 뒤에는 <=>를 하고 뜻이 같은 단어를 들어주었다. (하략)

### (아) 조선어대사전

#### 5. 語義 · 言尺語 · 用例

1) 代表言尺

必要に応じ, 語義の冒頭に代表言尺を付した.

2) 語義分類

語義分類には次の記号がある.

① 同一見出し語で品詞が異なる場合は, 로마 數字 I, II…を用いて分類した.

② 同一品詞内では, ①, ②…を用いて分類した. ①, ②…より下位の分類には, セミコロ(;)を用いた.

③ 語義と語義との間には, コンマ (,) を入れ, 語義の最後には, ビリオド (.) を付した. 但し, 用例が後續する場合は別

④ 人名・地名・制度・歴史・文南犬・民俗などの百科事典的な項目においては, 語義内にもビリオドを用いた.

3) 双解

語義・言尺語において, そこに出てくる日本語に對応する朝鮮語がある場合, 適宜それを ( ) 中に記した. これを双解と称する. 双解はまた説明文中の朝鮮固有の文化關係の語にも付した.(下略)

뜻풀이의 기본 원칙을 별도로 밝히고 있는 것은 (라)와 (바)의 사전뿐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 사전마다 그 뜻풀이 원칙과 방식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전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뜻풀이 원칙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풀이한다.

② 분명하고 쉬운 말로 풀이한다.

③ 어원에 가까운 것, 또는 일반적인 것(사용 빈도가 높은 것)부터 풀이한다.

④ 주된 말 — 본말과 가장 대표적 동의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변한 말 — 에만 풀이한다.

⑤ 풀이 끝에 동의어, 용례, 변한 말, 준말, 원말, 센말·거센말·큰말·작은말, 높임말·낮춤말, 상대어, 참고어 등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표제어의 뜻풀이에서는 이와 다르게 뜻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 국어사전들이 뜻풀이 원칙"을 제시했지만, 실제 그 원칙에 맞는 뜻풀이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어휘를 뜻풀이 원칙에 맞는 뜻풀이 방식에 따라 뜻풀이하지 않고 있



음을 말해 준다.

그래서 필자는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고 그 원칙에 따른 뜻풀이 방식을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 1. 體系性

어휘의 의미 관계는 형태와 의미가 1 대 1 대응 관계인 系列關係와 結合關係, 1 대 다 대응 관계인 複合關係로 대별할 수 있다. 계열 관계는 어휘소가 종적으로 대치되는 관계를 말하며, 결합 관계는 어휘소가 횡적으로 맺는 관계이다. 그리고 복합 관계는 하나의 형태나 표현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관계이다.<sup>9)</sup> 계열 관계를 이루는 어휘로는 유의어, 상·하위어, 반의어들이 있으며, 결합 관계를 이루는 어휘로는 합성어, 관용어, 연어들이 있고, 복합 관계를 이루는 어휘로는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들이 있다. 이렇게 의미 관계로 체계화된 틀 속에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體系性<sup>10)</sup>의 원칙이다. 즉 국어사전의 표제어들을

9) 뜻풀이 원칙에 대해서는,

양명희(1995), "종합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 I",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pp.36~57.

정호성(1995), "종합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 II",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pp.58~77.

등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종합국어대사전』(가칭)을 편찬하기 위해 일반어 집필자들이 집필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뜻풀이 방식의 설명에 치우쳐서 기본 원칙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표제어 뜻풀이의 기본 원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표제어의 뜻풀이에서 이 '뜻풀이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뜻풀이 원칙이 일반적 대원칙부터 구체적 세부 원칙까지 잘 제시된다면 표제어의 뜻풀이를 이에 맞춰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임지룡(1995),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pp.135~244. 참조.

11) 체계성에 따라 語義를 밝히려는 연구보다는 '어휘 분류'의 전제로 삼는 연구 경향이 강하다. 이을환(1985)의 경우 소쉬르의 방법에 따라 "語意는 所記間의 聯想으로 인한 聯合關係, 能記間의 聯想으로 인한 聯合關係로, 다음은 所記와 能記의 兩面에 依한 聯合關係" 등으로 정리,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아 어휘를 동의어, 반의어, 다의어, 동음어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어휘를 체계화하여 의미를 살펴야 바람직하다는 말이 될 것이다.

유의어, 반의어, 합성어, 연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 등으로 語彙群을 묶고 어휘의 의미를 서로 비교하여 뜻의 연관이나 구별이 뚜렷하도록 뜻풀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가장 문제점들이 많은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1.1. 계열 관계인 경우

#### 1.1.1. 類義語의 예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서 형식 부문을 이루는 기호(symbol)들, 즉 S1과 S2가 서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어휘소들이 의미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어휘소들은 형식 부문인 기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같거나 혹은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類義關係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에 놓이는 어휘를 ‘類義語(synonym)’라 한다. 필자가 사용하는 ‘유의어’의 용어는 의미가 같은 ‘同義語’의 개념도 포괄하는 廣義의 용어이다. 유의어의 뜻풀이에서 비체계적인 예를 보도록 하자.

- (1) 노:랴다<노라니·노라오>㉠(ㅎ변) ①[개나리꽃같이] 새뜻하고 매우 노르다. <누르다. ②[속]매우 위축(萎縮)되거나 시들어 기세가 꺾여 있다. \*짜이 ~. 노르다<—니·—러>㉡(러변) 등색(橙色)과 녹색 중간의 빛으로 황금이나 늦쇠의 빛깔같이 노랴다. 새뜻하고 질게 누르다. <누르다. 누르다<누러니·누러오>㉢(ㅎ변) 몹시 누르다. >노랴다①. 누르다<누르니·누르러>㉣(러변) [빛같이] 황금이나 호박꽃의 빛과 같다. 무지개의 셋째 빛깔과 같다. >노르다. 노르께-하다㉤(여변)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누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 →노르께하다. 노르무레-하다㉦(여변) 산뜻하지 않고 열게 노르다. <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여변) 태가 나고 산뜻하며 빛깔이 가장 열게 노르다. 노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노릇-하다㉨(여변) 좀 흐릿하게 노르스름하다. <누릇하다. 노릇노릇-하다㉩(여변) \*노릇-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누릇누릇. —『새우리말큰사전』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 (2) 노랗다(㉠)(ㅎ변) ①개나리꽃 같은 빛이다. 매우 노르다. <누렇다. ②<속>매우 위축(萎縮)되거나 시들어 기세가 꺾여 있다. ㉡썩수가~ /노랗게 시들다.  
 노르다(㉢)(러변) 황금이나 낫쇠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 <누르다.  
 누렇다(㉣)(ㅎ변) 매우 누르다. >노랗다.  
 누르다(㉤)(러변) 낫쇠나 금의 빛과 비슷한, 좀 어두운 노른 빛이 나다. >노르다.  
 노르께-하다(㉥)(여변) 굵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노르끄레하다. <누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여변) 노르께하다.  
 노르무레-하다(㉧)(여변) 산뜻하지 아니하고 열게 노르다. <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여변) 산뜻하고 열게 노르다. <누르스름하다.  
 노릇-하다(㉩)(여변) 노르스름하다. ㉪벼이삭이 ~. <누릇하다.  
 노릇노릇-하다(㉫)(여변)  
 \*노릇-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누릇누릇. —『국어대사전』

- (3) 노:랗다(㉭)(ㅎ변) ①질게 노르다. (㉮)노란 개나리꽃. 노란 저고리. [큰]누렇다. ②썩수가 노랗다.⇒썩수.  
 노르다(㉯)(러변) 산뜻하게 누르다. [큰]누르다.  
 누:렇다(㉺)(ㅎ변) 질게 누르다. (㉻)누런 강아지. 누렇게 익어 가는 벼. (작은)노랗다①.  
 노르께-하다(㉼)(여변) 굵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노르께한 은행잎. 얼굴이 ~. [큰]누르께 하다. [한]노리끼리하다.  
 노르끄레-하다(㉾)(여변)→노르끄무레하다.  
 노르무레-하다(㉿)(여변) 태가 나지 않게 약간 노르다. [큰]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㊀)(여변) 빛깔이 조금 노르다. [큰]누르스름하다. [한]노름하다.  
 노릇-하다(㊁)(여변) 좀 노르스름하다. [큰]누릇하다.  
 노릇노릇-하다(㊂)(여변) 군데군데가 다 노릇하다. [큰]누릇누릇하다. —『우리말큰사전』

- (4)노랗다[-라타](㉫)(여불)<노라니, 노라오, 노래>[∞누렇다] ①산뜻하게 매우 노르다. ㉬개나리 꽃이 노랗게 피었다. ㉭누렇다. ②매우 위축되거나 시들어서 기세가 꺾여 있음을 알잡아 이르는 말.  
 노르다(㉮)(러불)<노르니, 노르러>[∞누르다] 황금, 낫쇠 등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 ㉯누르다.  
 누:렇다[-라타](㉺)(ㅎ불)<누러니, 누러오, 누레> [√ 누렇 = (<√ 누르 = ʹ+ -어+√ 하 = ') + -다] 매우 누르다. ㉻보리가 누렇게 익다. ㉫노랗다.

누르다\*㉠(러불)〈누르니, 누르러〉 황금이나 낫쇠의 빛과 비슷하다.

노르께-하다㉡(여불)[㉡노르께하다]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노르끄레하다.

㉡노르께한 탕자. ㉡누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여불)[㉡노르끄레하다] = 노르께하다.

노르무레-하다㉡(여불)[㉡노르무레하다] 산뜻하지 않고 열게 노르다. ㉡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여불)[㉡노르스름하다] 산뜻하고 열게 노르다. 노르스레하다.

노릇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르스름-히㉡ ㉡전을 노르스름히 부치다.

노릇하다: 표제어로 설정되지 않음(필자 주).

노릇노릇-하다㉡(여불) ㉡나무에 병이 들어 잎이 모두 노릇노릇하다. /땀을 노릇노릇하게 굽다.

\*노릇노릇㉡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누릇누릇 —『금성관 국어대사전』

(5) 노:랑다(노라니·노랄)㉢㉣ ①빛깔이 매우 노르다. ㉢누렇다. ②[잎이 노렇게 시들 듯] 다시 일어날 가망이 없다. ㉢썩수가 —.

노르다(노르러·노르러서)㉤㉥ 개나리꽃이나 호박꽃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 ㉤누르다.

누렇다(누러니·누렐)㉤㉥ 매우 누르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 ㉣노랗다.

누르다\*(누르러·누르러서)㉤㉥ 개나리꽃이나 호박꽃의 빛깔과 같다.

노르께-하다㉡(여) 곱지도 질지도 않게 노르다. ㉡누르께하다.

노르끄레-하다㉡(여) 노르께하다.

노르무레-하다㉡(여) 산뜻하지 않고 열게 노르다. ㉡누르무레하다.

노르스름-하다㉡(여) 산뜻하고 열게 노르다. 노르스레하다. ㉡노르스름하다.

노릇하다: 표제어 없음.

노릇노릇-하다

노릇-노릇㉡㉢ 군데군데 노르스름한 모양. ㉡누릇누릇. —『동아 새국어사전』

이 (1)~(5)를 보면 표제어의 선정과 뜻풀이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이 눈에 띈다.

먼저 표제어 선정의 비체계성을 볼 수 있다. (4)의 경우는 '노르스름하다'의 뜻풀이에 '노릇하다'를 유의어로 나열해 놓고도 '노릇하다'를 표제어로 올려놓지 않고 있다. (5)도 '노릇하다'를 표제어로 삼지 않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순환적 뜻풀이의 문제점이 눈에 띈다. (5)의 경우, '노랗다'의 기본뜻이 '산뜻하게 매우 노르다.'여서 '노르다'를 찾아가면 '황금, 낫쇠 등의 빛깔과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같이 노랗다.'로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뜻을 이해하기가 몹시 어렵다. '노랗다'에는 '노르다'를, '노르다'에는 '노랗다'를 이용하여 동의어 반복이나 다름없이 뜻풀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적 뜻풀이는 비체계적 뜻풀이의 대표적이라 할만 한데, 사전 이용자들이 표제어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큰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전을 이용하여 일차적인 단어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의미 관계에 놓인 어휘들의 체계'를 살펴 뜻풀이를 해야 한다.

'노르스름하다'인 경우는 (1)~(5)에서 거의 같게 뜻풀이를 하고 있으나, '노릇하다'의 경우는 (1)~(3)를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뜻풀이를 해 놓았다. '(1)좀 흐릿하게 노르스름하다, (2)노르스름하다, (3)좀 노르스름하다'로 되어 있어 그 색의 농도에서 차이가 나는 별개의 단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1)의 경우는 혼란이 더욱 심하다. '노랗다'와 '노르다'에서 서로 엇바뀌 가면서 순환적 뜻풀이를 하는 문제점과 동시에 '노르다'보다 느낌이 센말이 '누르다'임을 'ㄱ' 기호로 표시하고 있으나, '노르다'의 뜻풀이를 보면 '~ 짙게 누르다'라고 하여 오히려 '노르다'가 '누르다'보다 느낌이 센말인 듯이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1)~(5)의 뜻풀이를 보면 상호 연관성을 찾는데 혼란스러움이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어떤 낱말을 '기본 어휘'로 삼느냐이다. 그러나 우리 국어 사전들에서는 예에서 보듯이 '노랗다/노르다/누렇다/누르다' 중 어느 한 낱말을 기본 어휘로 삼아서 뜻풀이를 하고 있지 않다. (2)을 보면 '노랗다'는 '개나리꽃 같은 빛이다. 매우 노르다.'로, '노르다'는 '황금이나 놋쇠의 빛깔과 같이 노랗다.'로 뜻풀이해 놓아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우리가 '노르다'를 기본 어휘로 삼는다면, 이 모든 어휘의 뜻풀이는 '노르다'의 뜻을 중심으로 삼아 뜻풀이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노르다'의 뜻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가?

영어 사전에서 보면, "yellow : the colour of gold or the yolk of a hen's egg."<sup>12)</sup>[노랑: 황금 또는 달걀의 노른자 색깔]로 색깔과 관련된 낱말의 뜻풀이는 자연물에 빗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로서도 이러한 뜻풀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르다'를 '활짝 핀 개나리꽃이나 황금빛, 달걀 노른자의 색깔이다.'로 뜻풀이를

12) A.S. Hornby & A.P. Cowie(1974),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p.1847.

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사전들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이렇게 기본 의미가 확정되면 이 기본 어휘를 바탕으로 연관된 어휘의 뜻풀이를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어휘간의 의미 차이까지 드러나는 뜻풀이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뜻풀이를 체계적이며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

노르다<—니·—러>㉠(러변) 활짝 핀 개나리꽃이나 황금빛, 달걀 노른자의 색깔이다. ㉡예문.<누르다.

노:랴다<노라니·노라오>㉢(ㅎ변) ①매우 밝게(산뜻하게) 노르다. ㉡예문. ⇨노르다. <누르다.

누르다<누러니·누러오>㉣(ㅎ변) 약간 어둡게 노르다. ㉡예문. <노랴다①.

누르다<누러니·누러러>㉤(러변) 매우 짙게 노르다. ㉡예문. <노르다.

노르께-하다㉥(여변) 곱지도 짙지도 않게 노르다. ㉡예문. <누르께하다.

...(하략)...

### 1.1.2. 反義語의 예

反義語(antonym)란 '어떤 낱말에 대하여 반대되는 뜻을 지닌 낱말'을 말한다. 학자들에 따라서 '반대말, 반대어, 반의어, 相對語, 對照語, 對立語, 對稱語, 逆動語, 逆意語, 짝말, 맞섬말' 등으로 그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과연 이 용어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포괄적인 의미의 용어인지 쉽게 단언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널리 쓰이는 용어 가운데 '반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뜻풀이의 체계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반의어의 체계는 형태상·의미상의 유표성(markedness)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sup>13)</sup>

형태상의 유표성에 대한 성분 분석의 예를 본다면, 'B/a+B' 형과 'B/B+a' 형으로 나눌 수 있다. 'B/a+B' 형은 '도덕/부도덕, 상식/몰상식, 낙원/실락원, 고소인/피고소인' 따위처럼 부정접사에 의해, '수탉/암탉, 남학생/여학생' 따위처럼 성별 표지에 의해 유표성을 갖는 경우이고, 'B/B+a' 형은 '시원하다/시원찮다' 따위처럼 서술어에 유착된 부정어에 의해, '소/송아지, 개/강아지' 따위처럼 어근에 붙은 축소사에 의해 유표성을 갖는 경우이다.

13) 임지룡(1995), 전게서, pp.172~175.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pp.397~422, 참조.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의미상의 유표성에 대한 성분 분석의 예로는, '길다/짧다'의 경우 '길다=[형용사][비교적][길이][기준보다 크다(+극)]/ 짧다=[형용사][비교적][길이][기준보다 작다(-극)]'으로 '+극/-극'에 따라 유표성을 갖는다.

이러한 계열 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체계적인 뜻풀이가 가능하다.

반의어의 체계 속에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뜻풀이를 하는데 반의 관계에 놓인 낱말들에 관해 통일된 체계를 세운다면, 한 낱말의 뜻을 알고 반의어인 다른 낱말의 뜻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사전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우선 어떤 낱말들을 반의 관계로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이 문제가 된다. 심재기(1984)의 다음 글은 반의 관계를 규정짓는 데 아주 바람직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반의어는 동질성(同質性)의 조건으로서, 한 언어 사회 안에서 심리적으로 동시 연상이 가능한 한 쌍의 단어이어야 한다.

둘째, 반의어는 동질성의 또 하나의 조건으로, 연상된 공존쌍이 논리학적으로 동일한 유개념(類概念)에 속하는 동위개념(同位概念)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반의어는 이질성(異質性)의 조건으로 동위(同位)의 공존쌍이 의미의 배타성(排他性 incompatibility: 兩立不能性)을 가져야 한다.

넷째, 반의어의 이질성을 특징짓는 또 하나의 조건은 대칭적 상반성(對稱的 相反性 symmetrical contrariness)을 가져야 한다.

이는 意味特質로서 '共存雙과 同位性을 가지는 同質性, 排他性和 對稱的 相反性을 가지는 異質性'의 조건을 갖추어야 두 낱말이 서로 반의 관계[반의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6) 적:다<sup>3</sup> ㉠[분량이나 수효가] 어느 표준에 자라지 아니하다. 많지 아니하다. \*재미가 ~. ↔ 많다. ⇨ 작다.

많:다 ㉡ ①[수나 양이] 일정한 기준 이상이다. \*재산이 ~. ②어떤 표준 정도보다 더하다. \*복이 ~. 경험이 ~. ↔ 적다<sup>3</sup>. -『새우리말큰사전』

(7) 적:다<sup>3</sup> ㉢ 많지 아니하다. 어느 표준에 자라지 못하다. ㉣경험이 ~. / 적은 수입.

↔ 많다.

많다: 다[●]사물의 수효나 분량·정도가 어느 표준을 넘다. 적지 않다. 수가 넉넉하다. ♣말이 ~. /경험이 ~. /복이 ~. ↔ 적다. —『국어대사전』

(8) 적다: 다\*[-파][●] (수나 양이) 어느 기준 이하이다. ♣밥이 ~. /수입이 ~. /칼로리가 적은 식품. ↔ 많다.

많다: 다[만타][●] [√ 만(?) + 하다'] 사물의 수효나 분량이 일정한 기준을 넘다. ♣자식이 ~. /밥이 너무 ~.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고생이 많습니다. ↔ 적다. —『금성판 국어대사전』

(9) 적다: 다\* [●] [분량이나 수효가] 일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다. 모자라다. ↔ 많다.

많다[만타][●] ①수효나 분량이 어떤 기준을 넘다. ♣인원이 ~. /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②정도가 일정한 수준을 넘다. ♣유난히 정이 ~. /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많은 경험을 쌓다. ↔ 적다. —『동아 새국어사전』

이 '적다/많다'의 경우 '적다=[형용사][비교적][수량][기준보다 작다(-극)]/많다=[형용사][비교적][수량][기준보다 크다(+극)]'으로 '+극/-극'에 따라 의미상의 유표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적다: 수효나 분량이 어느 기준보다 못하다 [모자라다]. / 많다: 수효나 분량이 어느 기준을 넘다.'로 '기본뜻'을 삼아 뜻풀이한다면 충실한 뜻풀이를 할 수 있다.

## 1.2. 결합 관계인 경우

### 1.2.1. 대등합성어

대등합성어는 구성 요소가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소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다.

명사류 : 논밭, 오누이, 오랍동생, 비바람, 밤낮, 안팎, 물불, 손발, 앞뒤, 피땀, 바지저고리, 남녀, 마소, 일월, 혈육, 흑백, 장단, 산수, 내외, 강산, 춘추, 풍수, 주야, 천지, 초목, 옥석, 모순 등

부사류 : 여기저기, 이리저리, 들락날락

동사·형용사류 : 겹뵈다, 오르내리다, 오가다, 높푸르다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이러한 대등합성어는 두 낱말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합성을 이루기 이전의 單一語의 의미를 가지고 뜻풀이하면 된다. 하지만 '모순'이나 '바지저고리' 같이 원말에서 멀어진 단어는 현재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뜻을 '기본 뜻'으로 삼아 제1항목으로 뜻풀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물불' 같은 단어는 '물불을 가리지 않다.'라는 慣用語로만 사용됨을 명백히 밝혀주어야 한다.

### 1.2.2. 연어

連語(collocation)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더 복잡한 관념을 나타내는 언어를 말한다. 이 연어들이 맺는 관계는 문장 배열에서 드러나므로, 문장 성분들의 어울림이 연어 관계라 하겠다.

연어 관계를 살펴보면 단어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문형 정보를 바르게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① 100미터를 달리고/뛰고 나니 숨이 차다.
- ② 이 차는 2만 킬로미터를 달렸다/뛰었다.
- ③ 이 길에는 차들이 달린다/\*뛰다.
- ④ 물에서는 고기들이 뛰다/\*달린다.(물 표면에서 고기들이 뛰어오를 때)
- ⑤ 장대높이뛰기 선수가 7미터를 뛰었다/\*달렸다.<sup>14)</sup>

이러한 연어 제약에 따라 우리는 '달리다'는 '발을 빠르게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다.'의 뜻이며, '뛰다'는 '땅 위에서 발을 일정한 높이로 위로 들어올리면서 공중으로 높이 오르거나 앞으로 나아가다.'의 뜻임을 분명히 구분하게 된다.

### 1.3. 복합 관계인 경우

#### 1.3.1. 多義語와 同音異義語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고 認知가 발달함으로써 어휘들은 자연스럽게 복잡한 事象을 담기 위해 多義性을 갖게 된다. 맨 처음에 한 낱말이 하나의 사상을 뜻했다 라도 그 '본뜻'에서 점점 '확장된 뜻'을 가지게 됨으로써 多義語(polysemous word)가 된다.

14) 임홍빈(1997), 『뉴앙스 풀이를 곁한 우리말사전』, 아카데미하우스, p.179

다의어와 同音異義語(homonym)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는 것은 어휘의 의미 해석에 따라 다의어로 처리하거나 동음이의어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어사전들을 보면 한 표제어에 여러 개의 뜻이 실린 낱말이 많은데 이 여러 개의 뜻을 한 낱말의 뜻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 하나를 별개 낱말의 뜻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가 된다.

정순기·리기원(1984)은 “다의어와 소리 같은 말을 가르는 데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대상 어휘들의 본래뜻에서 뜻이 갈라져 나오게 된 유래를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어원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의어로 처리하고 어원을 알기 어려운 것은 동음이의어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기동(1986, 1987)은 “다의어란 단순히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진 낱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서로 관련된 뜻을 갖는 낱말”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기존 사전들이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뜻풀이하고 있는 표제어들 중 상당수가 다의어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그는 이런 표제어들에 대해 일반적 풀이를 먼저 제시하고 다음에 ‘1, 2, 3 ……’으로 일반적 풀이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예를 수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라이온스(1977)<sup>15)</sup>처럼 다의어를 極大化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기동은 다의어의 사전적 처리 문제를 논의하면서 인간의 ‘인지(Cognition)’에 바탕을 두고 어휘의 의미를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처럼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에 따른 어휘의 뜻풀이는 ‘기본뜻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뜻의 배열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섭(1998, 1991, 1995-, 1995-)의 제안처럼 ‘말뭉치’를 이용한 방법이 타당할 듯하다. “문법 이론가의 국어에 대한 판단은 절대적이 아니라 확률적일 뿐이다. 확률은 많은 실제 사실들로부터의 귀납의 결과이다. 언어에 대한 개인적 직관이란 결국 개인의 언어 경험에서 귀납된 내용이니,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 언어의 실례의 대량 수집은 그 언어에 대한 판단의 타당성의 확률을 높여 준다.”<sup>16)</sup>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 대량 수집된 ‘말뭉치’를

15) Lyons(1977), *Semantics*, vol.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550~569.

16) 이상섭(1991), “뭉치 언어학 : 사전 편찬의 필수적 개념”, 『사전편찬학연구』 제3집, 탑출판사, p.176.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분석하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기본뜻'을 확정할 수 있고, 어휘의 빈도수에 따라 뜻의 배열 순서를 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다. 이 '몽치언어학'에 의한 방법은 현행 국어사전들의 뜻풀이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하여 '말뭉치'의 빈도에 따라 언어의 자연 상태를 포착하고 사전 편찬에 적용하려는 실천적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기본뜻'의 확정이라든가, '뜻의 배열 순서' 결정에는 지극히 합리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바로 '뜻풀이' 문제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왜냐 하면 대량의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낱말을 포착하더라도 그 낱말의 뜻을 풀이하는 것은 학자의 인지에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인지'의 문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 어휘의 뜻을 바르게 풀이하고 의미의 연관관계에 놓인 어휘들의 체계를 세우는 일은 학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지의미론'과 '몽치언어학'적 방법의 통합에 따른 뜻풀이 방식을 제안한다.

첫째로 대량 수집된 말뭉치<sup>17)</sup>들을 이용하여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뜻을 '기본뜻'으로 삼는다.

둘째로, '본뜻'이 현재 쓰이지 않을 때는 제1의 뜻풀이 항목 앞에 [ ] 안에 본 뜻을 밝혀 주고, 현재 쓰일 때에는 그 해당 항목의 뜻풀이 이전에 [ ]를 하여 본 뜻을 명기한다.

셋째, 뜻의 나열 순서는 빈도수에 따라 하되, 意味轉移 방식에 따라 '구체적 사물[사실]의 뜻'에서 '확장된 뜻[추상적 개념]'의 차례로 배열한다.

17) '말뭉치'를 수집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주로 문헌을 이용한 말뭉치 구축을 하고 있는데, 문헌을 선정할 경우에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의 문헌을 많이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특정인이나 특정 분야의 말뭉치가 가장 일반적인 언어 현상을 담고 있는 말뭉치로 구축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리고 몽치언어학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언어학자들에 의해 꾸며진 언어 정보, 곧 사용례들의 조작성·인위성을 피하여 자연 언어 상태를 포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문헌을 이용한 말뭉치 구축보다 일상 생활에서 言衆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생한 예문들을 대량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해 나가는 비중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넷째, '구체적 사물[사실]의 뜻'과 '확장된 뜻'은 항목을 달리하여 뜻풀이한다.

다섯째, '본뜻'에서 갈라져 나온 유래를 설명할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을 때는 모두 다의어로 설정하여 뜻풀이한다. 곧, 다의어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따른다.

여섯째, 動詞類의 경우에는 동사·형용사의 품사 구분에 따라 동음이의어로 처리하여 뜻풀이한다. 언어 생활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품사가 다르면 문장의 쓰임이 이미 다르게 되므로 언어 사용자는 서로 다른 어휘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뜻풀이는 국어사전들간의 대비를 철저히 하여 단순 대치형으로 풀이가 되어 있거나, 단어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지 못하는 무용한 풀이, 그 뜻을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부족한 풀이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문제점을 해결하여 뜻풀이를 하도록 한다. 또한 語源表示 문제와 관련하여 다의어와 동음이의어의 기원을 소급하여 그 어원을 밝히고 문헌상 그 단어의 최초의 출현 연대를 제시하고 그 때의 의미와 그 뒤의 여러 문헌에 사용된 예를 보여주는 변화된 의미를 풀이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10)타다 ㉠ ①불이 붙어 벌겍게 되거나 불길이 오르다. 연소하다. \*장작이 ~. 숯이 ~. ②[까맣거나 누렇게 변하도록] 몹시 높다. \*장판이 ~. 밥이 ~. ③마음이 몹시 달다. \*속이 ~. 간장이 ~. ④심히 그을다. \*얼굴이 ~. ⑤바짝 마르게 되다. \*뱃모가 ~.

타다 ㉡ ①[차·배·항공기 따위] 탈것이나 짐승의 몸 위에 몸을 올려놓다. \*차를 ~. ②발붙이기 어려운 곳을 겨우 가다. \*줄을 ~. ③[산등성이 따위의 어떤 위를] 밟아 다니거나 오르내리다. \*산을 ~. ④어떤 조건이나 기회를 포착하다. 때를 이용하다. \*야밤을 타서 기습하다. ⑤[바람·구름·소리 따위를] 이용하여 실리거나 날리다. \*바람을 타고 들려 온다. ⑥[스케이트·스키·썰매 따위를] 이용하여 미끄러지다. \*로올러 스케이트를 ~. ⑦그네 따위의 위에 올라앉거나 서거나 또는 앞뒤로 흔들거려 왔다갔다하다. \*그네를 ~.

타다 ㉢ ㉠일정한 액체에다가, 다른 액체나 고체 따위를 넣어 섞다. \*약을 ~. 설탕을 ~.

타다 ㉣ ①[나누어주거나 대주는 돈이나 물건 따위를] 받다. \*갯돈을 ~. ②[복이나 재주·기운·운명 따위를] 지니다. \*타고난 운명 \*타고-나다 선천적으로 받아 지니고 태어나다. \*재주를 ~.

타다 ㉤ ①[양쪽으로 갈라서] 줄이나 끈을 내다. \*가르마를 ~. 끈을 ~. ②[속을 드러내기 위하여] 베거나 찢어 쪼개다. \*박을 ~. 생선의 배를 ~. ③[날알 등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을 맺돌 따위로] 부서뜨리다.

타다<sup>ㄷ</sup> ㉠풍금이나 피아노·현악기 따위를 다루어 소리를 내다. \*피아노를 ~.

㉡[숨을] 튀기거나 쳐서 피우다. \*숨을 ~.

타다<sup>ㄷ</sup> ㉢[어떤 것이 끼치게 되는 영향을] 잘 받거나 느끼다. \*간지럼을 ~. 가뭄을 ~. 더위를 ~. 무서움을 ~. 옷을 ~. 손을 ~. —『새우리말큰사전』

(11)타다<sup>ㄷ</sup> ㉣①불이 붙어 들어가다. 불길이 오르다. 연소하다. ㉠건물이 ~. ②뜨거운 열로 하여 빛이 까맣게 되다. ㉡밥이 ~. /별에 탄 얼굴. ③애가 썩어서 가슴속에 불이 붙는 듯한 느낌이 나다. 정열이 막 솟아오르다. ㉢애가 ~. /타는 가슴. ④빛이 극히 강렬함을 형용하는 말. ㉣타는 듯한 장미꽃.

타다<sup>ㄷ</sup> ㉤①탈것이나 짐승의 몸 위에 몸을 엮다. ㉠비행기를 ~. ②산이나 나무나 줄을 올라가다. ㉡줄을 ~. /바위를 ~. ③기회를 포착하다. 때를 이용하다. ㉢혼란한 틈을 ~. ④얼음 위를 건너 미끄러져 달다. ㉣썰매를 ~. ⑤물결·기세 등에 몸을 맡기다. ㉠순풍을 ~. /물결을 ~. /리듬을 ~. /전파를 ~.

타다<sup>ㄷ</sup> ㉥많은 액체에다가 적은 액체나 가루 같은 것을 섞다. ㉠물에 약을 ~.

타다<sup>ㄷ</sup> ㉦①재산·월급·배급·상 같은 것을 받다. ㉠일당상을 ~. ②복이나 재주 같은 것을 선천적으로 지니다. ㉡타고 난 재주.

타다<sup>ㄷ</sup> ㉧①머리를 갈라붙이어서 가르마를 내다. ㉠가르마를 ~. ②박 따위를 두 쪽으로 가르다. ③콩·팥·보리 등을 맺돌에 갈아 알알이 쪼갬다. ㉡녹두를 ~.

타다<sup>ㄷ</sup> ㉨①거문고·가야금 같은 것을 튀기어 소리를 내다. ②풍금·피아노 같은 것을 두들겨 소리를 내다.

타다<sup>ㄷ</sup> ㉩①독하고 나쁜 기운을 몸에 유난히 잘 받다. ㉠옷을 ~. ②부끄럽거나 노염을 유달리 쉬 느끼다. ㉡부끄럼을 잘 타는 소녀. ③시절이나 기후의 영향을 쉬 받아서 몸이 마르고 해쓱해지다. ㉢여름을 ~. /추위를 ~.

타다<sup>ㄷ</sup> ㉪목화를 씨아로 틀어서 씨를 빼 낸 뒤에 활줄로 튀기어 퍼지게 하다. ㉠숨을 ~. —『국어대사전』

(12)타다<sup>ㄷ</sup> ㉫(제) ①불이 붙어 별경계 되거나 불꽃이 일어나다. (H)나무가 ~. 종이기가 ~. 활활 타는 숯불. 타는 듯 한 장미꽃. ②열을 받아 누렇게 또는 까맣게 되다. (H)밥이 ~. 방바닥이 탔다. [참고] 눅다. ③햇볕에 몹시 그을다. (H)구릿빛으로 탄 얼굴. 검게 탄 살갓. ④바삭 말라붙다. (H)가물어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농작물이 탄다. 목이 타서 물을 찾는다. ⑤마음이 몹시 달다. (H)마음이 ~. 가슴이 ~. [참고]간이 타다. ⇨간11. 속이 타다. ⇨속1. 애가 타다. ⇨애3.

타다<sup>ㄷ</sup> ㉬(제) 탈 것, 짐승의 몸 따위에 오르다. (H)배에 ~. 차에 ~. 소잔등에 탔

다. ———(남) ①탈 것, 짐승의 몸, 높은 곳 따위에 몸을 올려놓다. (비)기차를 ~. 말을 타고 온다. 난간을 타고 앉아 있다.[참고]목말을 타다. ⇨목말. ②탈 것, 기구, 짐승 따위에 제 몸을 신고서 부리다. (비)썰매를 ~. 그네를 ~. 자전거를 ~. 말을 잘 타는 사람. ③높은 데를 오르내리거나 길을 밟아 가다. (비)원숭이는 나무를 잘 탄다.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다. 절벽을 잘 타는 등산가. 눈두렁을 타고 질러갔다. ④줄을 잡거나 의지하여 움직이다. (비)밧줄을 타고 계곡을 건넜다. [참고]줄타기. ⑤물결, 바람, 소리 따위에 실리거나 날리다. (비)종이배는 물결을 타고 흘렀다. 봄바람을 타고 풍기는 꽃향기. 그 소식은 전파를 타고 방방곡곡에 전 해졌다. ⑥어떤 때나 조건을 이용하다. (비)기회를 ~. 밤을 타서 도망을 쳤다. 어둠을 타서 포위망을 뚫기로 하였다.

타다<sup>ㄷ</sup> ㄹ(남) ①뵙으로 주는 돈이나 물건을 받다. (비)켓돈을 ~. 봉급을 ~. 배급을 ~. 일등상을 ~. 용돈을 타서 쓴다. ②복, 재주, 운명 같은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아 가지다. (비)복을 ~. 슬픈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때를 잘 타야 한다. [참고]타고나다.

타다<sup>ㄷ</sup> ㄹ(남) ①돌로 갈라서 골이나 줄 따위를 내다. (비)가르마를 ~. 발고랑을 ~. ②속을 드러내려고 베거나 꺾어서 쪼개다. (비)박을 ~. 물고기 배를 ~. ③난알 따위를 멧돌에 갈아서 부서뜨리다. (비)멧돌로 콩을 탄다.

타다<sup>ㄷ</sup> ㄹ(남) 현악기나 건반 악기를 다루어 소리를 내다. (비)저문고를 ~. 풍금을 ~.

타다<sup>ㄷ</sup> ㄹ(남) 어떤 영향을 쉬 입거나 잘 느끼다. ㉠독한 기운을 몸에 잘 받다. (비)웃을 ~. 벌을 ~. ㉡심리적, 육체적 자극을 잘 받다. (비)노여움을 ~. 부끄럼을 잘 ~. 간지럼을 매우 탄다. ㉢철이나 날씨의 영향을 쉬 느끼다. (비)여름을 ~. 추위를 몹시 ~. 가뭄을 잘 타는 농작물. [참고]봄을 타다. ⇨봄'.

타다<sup>ㄷ</sup> ㄹ(남) 숨을 튀기거나 쳐서 퍼지게 하다. (비)숨을 ~.

타다<sup>ㄷ</sup> ㄹ(남) 액체에 다른 것을 넣어 섞다. (비)물에 꿀을 ~. 차에 설탕을 ~. 물에 소독약을 ~.

타다<sup>ㄷ</sup> ㄹ(남) →따다 ①. (제주). —『우리말큰사전』

(13)타다<sup>ㄷ</sup> ㄹ(자) ①불이 불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나다. ㉠마른 장작이 불에 활활 ~. ②뜨거운 열로 빛깔이 까맣게 되거나 누렇게 되다. ㉡햇빛에 얼굴이 검게 ~. /불이 세어 고기가 까맣게 탔다. ③마음이 몹시 달다. ㉢속이 ~. /애간장이 ~.

타다<sup>ㄷ</sup> ㄹ(타) ①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신다. ㉠자동차를 ~. /비행기를 ~. /말을 ~. ②(산이나 나무나 줄 따위를) 밟고 오르거나 지나가다. ㉡나무를 ~. /암벽을 ~. /줄을 ~. /함양에서 남원으로 가는 버스는 지리산 줄기를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넘어 벼랑을 타는 듯한 길을 오르고 내렸다(李元壽 나그네 手帖). ③바람이 나 전파 등에 실려 퍼지다. ㉑바람을 타고 연이 오르다. /뉴스가 전파를 타고 전국에 알려지다. ④(어떤 조건이나 기회 등을) 이용하다. ㉒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을 치다. /어둠을 타서 기습하다. ⑤얼음 위를 건너나 미끄러져 달다. ㉓썰매를 ~. /스케이트를 ~. ⑥그네나 시소 등의 놀이 기구에 올라 앉아 앞 뒤, 위 아래로 또는 원을 그리며 움직이다. ㉔그네를 ~.

타다(타) 많은 액체에 적은 액체나 가루 등을 섞다. ㉕커피에 설탕을 ~. /약을 물에 타서 아이에게 먹이다.

타다(타) ①재산·월급·상·배급 따위를 받다. ㉖월급을 ~. /상금을 ~. /아버지한테 용돈을 ~. ②선천적으로 복·재주 따위를 지니다. ㉗복(福)을 탄 사람.

타다(타) ①(두 쪽으로) 줄이나 끈을 내다. ㉘가르마를 ~. /밭고랑을 ~. /툽으로 박을 ~. ②(콩·팥 등을) 맷돌에 갈아서 알알이 쪼개다. ㉙맷돌에 녹두를 ~.

타다(타) 악기를 다루어 소리를 내다. ㉚거문고를 ~. /가야금을 ~. /하프를 ~.

타다(타) ①독한 기운이 몸에 쉬 받다. ㉛웃을 ~. ②부끄럼·노여움 따위를 쉬 느끼다. ㉜부끄럼을 ~. ③시절·기후의 영향을 쉬 받다. ㉝봄을 ~. /추위 [더위]를 ~. /...아름드리 소나무는 뜨겁고 지루한 여름 해에도 가뭄을 타지 않고 혼자 싱싱했다(鄭漢淑 조용한 아침).

타다(타) 목화를 씨아로 틀어서 씨를 빼고 활줄로 튀기어 퍼지게 하다. ㉞숨을 ~.

—『금성관 국어대사전』

(14)타다(타) ①불이 붙어 벌겋게 되거나 불길이 오르다. ㉟장작이 ~. /초가 ~. ②몹시 높다. ㊱장관이 ~. ③몹시 애가 쓰이거나 걱정이 되어 가슴속이 불붙는 듯하다. ㊲속이 ~. ④살갓이 햇볕에 그을다. ㊳해수욕으로 온몸이 고루 ~. ⑤물기가 없어 바짝 마르다. ㊴입술이 ~. /가뭄으로 논밭이 ~.

타다(타) ①탈것에 몸을 싣다. ㊵버스를 ~. ②(발붙이기 어려운 곳을) 오르거나 지나가다. ㊶나무를 ~. ③(산등성이 따위를) 밟아 지나가거나 오르내리다. ㊷주말마다 산을 ~. ④(썰매나 스케이팅 따위로) 미끄러져 달리다. ㊸썰매를 ~. ⑤그네나 올라앉아 놀게 된 놀이 시설 따위에 올라. 앞뒤로 흔들거나, 돌거나, 오르내리며 놀다. ㊹그네를 ~. /시소를 ~. ⑥(바람이나 연기·소리 따위에) 실리어 퍼지다. ㊺바람을 타고 들려 오는 퍼리 소리.

타다(타) 많은 양의 액체에다 적은 양의 액체나 가루 따위를 섞다. ㊻물에 설탕을

- 
- 타다<sup>4</sup> ㉠ [예산·재산·용돈·배급·봉급 또는 상이나 상금 따위] 어떤 몫으로 정하여 주는 돈이나 물건을 받다. ㉡ [복이나 재주·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 ㉢ [저이는 본디부터 일복을 탄 사람이다.]
- 타다<sup>5</sup> ㉠ [어떤 조건이나 때·틈 따위를] 잘 살피어 얻거나 이용하다. ㉡ [야음(夜陰)을 타고 기습하다. /틈을 타서 찾아가다. ㉢ [운명적으로 알맞은 때를] 만나다. ㉣ [시운(時運)을] 탄 영웅.
- 타다<sup>6</sup> ㉠ [줄이나 끈이 지게 양쪽으로 갈라붙이다.] ㉡ [가르마를 —. /고랑을 —. ㉢ [두 쪽이 나도록 쪼개거나 가르다.] ㉣ [박을 —. ㉤ [콩이나 팥 따위를 맷돌에 갈아] 잘게 부스러뜨리거나 쪼개다. ㉥ [팔을 맷돌에 —.]
- 타다<sup>7</sup> ㉠ [현악기를 튕기어 소리를 내다.] ㉡ [가야금을 —. ㉢ [숨 따위를] 활줄로 튕기어 퍼지게 하다. ㉣ [숨을 —.]
- 타다<sup>8</sup> ㉠ [어떤 기운이나 자극 따위의 영향을] 별나게 잘 받거나 느끼다. ㉡ [옷을 —. /부끄러움을 —. /타관을 —. ㉢ [시절이나 기후·부정 따위의] 독특한 기운이나 영향을 받아 상태가 나빠지거나 해를 받다. ㉣ [가물을 —. /봄더위(추위)를 —. /부정을 —.]
- 『동아 새국어사전』

‘타다’는 사전에 따라 7~8개의 동음이의어로 올려 있다. (10)인 경우 ‘피아노를 타다.’의 ‘타다’와 ‘숨을 타다.’의 ‘타다’를 같은 뜻 항목으로 처리하여 다른 사전들과 다르게 7개의 標題項[동음이의어]으로 되어 있다. 그 뜻풀이를 보면 모든 사전들이 서로가 비슷하다. 이는 서로가 모방을 하면서 사전을 편찬했기 때문이다. (12)의 경우, ‘타다’은 ‘기본뜻’에서 ‘확장된 뜻’으로 배열하면서 뜻풀이를 해 놓았는데 ‘타다’은 일반적인 뜻풀이를 제시하고 그 뜻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뜻풀이를 하고 있다. 같은 사전 안에서 이러한 뜻풀이 방식이 서로 차이 나는 것은 뚜렷한 뜻풀이 원칙을 마련하지 않고 어휘에 따라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뜻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1절에서 밝힌 것처럼 의미의 확장이 ‘구체적 사물[사실]의 뜻’에서 ‘추상적인[일반적인]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뭉치의 수집에 따른 어휘의 빈도수가 측정되지 않을 적에는 뜻의 배열을 ‘기본뜻’에서 ‘확장된 뜻’으로 해 나가야 한다. 곧 현재로서 뜻의 배열 방식은, (가)말뭉치가 수집된 경우에는 ‘기본뜻→빈도수가 높은 뜻의 차례로 배열’하고, (나)말뭉치가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수집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뜻으로 인지되는 뜻→구체적 사물(사실)의 뜻에서 추상적·일반적인 뜻으로 배열' 하는 두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타다'인 경우는 그 뜻의 배열 순서를 바꿔야 한다. 곧, '㉠철이나 날씨의 영향을 쉬 느끼다. →㉡독한 기운을 몸에 잘 받다. →㉢심리적, 육체적 자극을 잘 받다.'의 순서로 배열함이 타당하다.

그 뜻이 문장 속에서 정확한 쓰임새를 알려 주는 용례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정규 사전들보다 오히려 특수 사전인 『국어용례사전』, 『뉴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 말사전』 등이 더 낫다. 임흥빈(1994)에서는 (12)의 '타다'와 '타다'을 '비교적 단단한 덩어리의 물체를 둘로 갈라지게 하거나 깨다. 단단하게 뭉친 것을 찌다'로 뜻풀이를 함으로써 다의어 처리하였다. 이는卓見이라 하겠는데, 이에 따라서 '타다'은 '타다'의 다의어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의어로 처리할 수 있는 어휘가 또 없겠는가?

'타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서 건네주는 것을 받다.'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타다'도 '외부의 사물이나 자극으로 몸으로 받다/느끼다.'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다'과 '타다'은 서로 밀접한 의미의 연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타다'과 '타다'은 다의어로 처리할 수 있겠다. 이 경우 '타다'의 뜻이 기본적인 뜻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타다'의 뜻 항목들 다음에 '타다'의 뜻들을 배열하면 된다.

(10)에서는 '숨을 타다.'의 '타다'를 '거문고를 타다.'의 '타다'의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아마 '활줄을 이용하여 물건을 다루다.'는 의미로 통합하여 이와 같이 처리하였으리라 보이는데, 숨을 타면 숨털과 씨앗이 나누어지고 숨털 덩어리가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타다'의 다의어로 처리해야 함이 바람직하다. '타다'의 경우에도 單義語로 다루고 있는데 다른 사전들처럼 다의어로 다룸이 좋겠다.

(14)의 경우는 (10)를 많이 모방한 듯이 '숨을 타다.'의 '타다'를 '가야금을 타다.'의 '타다'의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전들에서 다의어로 처리하고 있는 '타다'인 경우 다른 표제어들과 동음이의어로 처리했으나 확장된 의미로 보아 다의어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라 '타다'는, "①[자]물체에 불이 붙어 불꽃이 오르거나 별경게 열이 나다. ②[타]어떤 물체 위에 올라 몸을 신다. ③[타]비교적 단단

한 덩어리의 물체를 둘로 가르거나 깨거나 단단하게 뭉친 것을 고루 퍼다. ④ [타]손가락으로 악기 줄을 튕겨 소리를 내다. ⑤[타]다른 사람이나 외부에서 건네주는 것을 받다. ⑥[타]액체의 물질에 다른 것을 넣어 섞다.”를 기본뜻으로 하는 여섯 개의 동음이의어로 다룰 수 있다.

## 2.2. 正確性

뜻풀이에서 ‘正確性’의 원칙은 사전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뜻을 보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뜻풀이 내용은 사실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15)동:요(童謠) ㉠《문》 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이나 심리(心理)를 나타낸 정형시(定型詩), 또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구전 가요(歌謠), 동가(童歌). —『새우리말 큰사전』

(16)동:요【童謠】㉠《문》 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이나 심리(心理)를 나타낸 노래 또는 가요(歌謠), 아동 문학의 한 부분으로, 아동이 쓰는 말로 아동을 위하여 어른이 지은 가요와, 아동 자신이 지어서 아동이 부르는 노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래(傳來) 동요와 아동 생활 중심으로 정서(情緒) 교육을 위하여 어른이 쓰는 현대의 동요로도 구분함. 동시(童詩)보다는 율동적(律動的)이고 민요적(民謠的)임. 동가(童歌), \*동시(童詩). —『국어대사전』

(17)동:요(童謠) ㉠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또는 어린이를 위하여 지은 노래. 동가(童歌). —『동아 새국어사전』

(15)는 ‘문학’ 분야에 한정하여 뜻풀이를 해 놓았다. (16)도 마찬가지이다. 백과사전적으로 전문 지식에 대한 뜻풀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음악’ 분야에서도 ‘童謠’란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나쳐 사실에 맞지 않는 뜻풀이가 되고 있다. 『음악대사전』<sup>18)</sup>에서는 동요를 “①어린이들의 생활 감정·심리 등을 아동 문학 용어으로써 표현한 定型的인 詩謠. (중략) ②1항의 동요에다 곡을 붙인 것. 어린이 노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뜻풀이만 하고 있는 (17)의 뜻풀이가 더 합리적이라 하겠다. 하지만 (17)처럼 ‘어린이들이 즐겨

18) 世光音樂大事典編纂委員會(1984), 『音樂大事典』, 世光音樂出版社. p.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부르는 노래'라고 하면 오늘날처럼 대중가요가 전파를 타고 확산되는 시대에 어린이들이 특정 대중가요를 즐겨 부른다고 할 때 과연 이 노래를 동요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므로 좀 더 제한적이고 정확한 뜻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과 같이 내용, 創作者, 노래 주체 등이 드러나도록 일반적 뜻풀이를 먼저하고 다음 항목부터 전문적 뜻풀이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요 ㉠ 어린이들의 생활이나 심리·사상을 담아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에 의해 지어져서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문학]…… ㉢[음악]……

이렇게 名詞類의 뜻풀이뿐만 아니라 문법 정보, 활용 등에 관련한 뜻풀이도 마찬가지이다.

(18) 울다(우니·우오) ㉠(르변) ①슬프거나 아프거나, 또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 <낮은>아가리질. ②[새나 벌레·짐승 따위가] 지저귀거나 소리를 지른다. (중략) ⑦[병적으로]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다. — 『새우리말큰사전』

(19) 울:다 ㉠(르변) ①정신적·육체적 자극을 견디다 못해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린다. ②새·짐승·벌레 따위가 소리를 내다. (중략) ⑦짐짓 어려운 체하다. ㉡우는 소리를 하다. \*울음. — 『국어대사전』

(20) 울:다\* ㉠(체)(르변) ①아프거나 슬프거나 또는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 ②짐승이나 벌레 따위가 소리를 내거나 지저귀다. (중략) ⑤발라 놓은 면이나 바느질 자리 따위가 우글쭈글하여지다. (ㄸ) 솔기가 운다. 습기가 차서 장판이 운다. — [단] '울음'을 부림말로 쓰기도 한다. (ㄸ)구슬픈 울음을 ~. — 『우리말큰사전』

(21) 울:다 ㉠(자)<우니,우오> ①슬프거나 아프거나, 또는 너무 좋아서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린다. ㉡우는 아기를 달래다. ②(새·짐승·벌레 따위가) 소리를 내다. ㉢꽃 피고 새 우는 봄동산. (중략) ⑦귀에서 저절로 소리가 나다. ㉣귀가 '앵'하고 ~. — 『금성관 국어대사전』

(22) 울:다 ㉠ ①[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 ㉡어머니

를 생각하며 — ②새나 짐승·벌레 따위가 소리를 내거나 부르짖다. 『새(귀뚜라미)가 — (중략) ⑦짐짓 어려운 체하다. 『네가 운다고 누가 도와 줄 줄 아니? — 『동아새국어사전』

(20)에서 보듯이 ‘울다’는 ‘웃다’, ‘자다’, ‘살다’ 등과 같이 同族目的構文으로서 ‘타동사’의 용법이 있다. 그러나(18)~(22)를 보면 (20)을 제외하고는 전부 ‘자동사’로만 그 뜻풀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다.’로 뜻풀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혼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다.’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는 모순된 표현인가? 문장 쓰임을 고려하지 않은 사전 편찬자의 직관에 의해 뜻풀이가 행해진 결과라 하겠다.

이처럼 우리 국어사전의 부정확한 뜻풀이들이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의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표제어의 뜻풀이는 낱말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3. 簡潔性

표제어의 뜻풀이를 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sup>19)</sup> 실용적이고 교육적 목적을 위해 간단하고 되도록 짧게 해야 한다. 동사와 형용사 따위는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풀이고, 명사 따위는 정의 형식에 따라 “**피정의항(표제항/ 올림말) = 정의항(의미 명사/ 뜻풀이)**”<sup>20)</sup>[중차 + 유개념]의 기본 구조로 뜻풀이한다.

하지만 고유 명사, 부사, 관형사, 대명사, 감탄사 등과 전문 용어, 호칭어, 관용구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흔히 메타언어<sup>21)</sup>적 정의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있다.

19) 李庸周(1986), “辭典 註釋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7호, 국어연구소, pp.84~101.  
김현권(1987), “언어사전의 정의의 유형과 原則”, 『한글』 제196호, pp.457~468.  
이병근(1992), “辭典 定義의 유형과 原則”,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pp.8~17.  
양명희(1995), 전제서, pp.37~49. 참조.

20) 이병근(1992), 상제서, p.8.

21) ‘메타언어(metalanguage)’란 “어떤 언어를 분석·기술하는 데 사용되는 고차원의 언어[기호] 체계를 말한다. “언어가 아닌 어떤 대상에 관하여 말하는 언어를 對象言語라고 하는 데에 대하여, 대상 언어의 표현 내용에 관하여 말하는 언어를 이르는 말”(이희승, 『국어대사전』)이라 하겠다.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이러한 簡潔性의 원칙은 기존 국어사전에 이미 채택되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는 대체로 간결하게 뜻풀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명사나 부사, 조사 따위의 뜻풀이를 보면 장황하고 산만하게 뜻풀이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새우리말큰사전』에서 뽑은 다음의 예를 보자.

- (23)마지기<sup>2</sup> (불명)는 · 발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한 말 곡식의 씨를 뿌릴 정도의 넓이를 뜻하는 것으로 각 지방마다 다르나, 대개 논 150-300평, 밭은 100평 안 됨. 두락(斗落). \*한 ~, 스무 ~, x나기, 말디기.

(23)은 정의 형식에서 벗어난 장황한 뜻풀이이다. 이는 “한 말 곡식의 씨를 뿌릴 정도의 넓이, 두락(斗落), [논·밭 면적 단위로 대개 논 150~300평, 밭 100평 가량.]”처럼 뜻풀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곧 정의 형식에 따르고 부가적 설명이 있으면 [ ] 속에 덧붙여 놓으면 된다.

- (24)머리 ㉠ ㉡ 《생》 동물체의 목 위의 대뇌·소뇌·연수 따위의 감각기와 중추 신경이 들어 있는 부분. 두개골로 싸여 있음. 골<sup>2</sup> ㉢. 두상(頭上). \*골통이, 대갈 빠리, 대갈빼기, 대가리, 대갈머리, 대강이, 머리뺨, 머릿통, 머릿골<sup>2</sup>. \*~에 운 동 모자를 쓰다. ㉣[사람의] 목 위의 부분. ㉤동물의 대가리. 곤충 따위에서는 배, 가슴을 제외한 부분. 더듬이, 겹눈, 또는 홑눈, 입 따위가 있음. ↔꼬리 ㉥. ㉦[어떤 사물의] 꼭대기 부분. \*삼각산 ~에 흰 눈이 덮이다.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 두목. \*그가 깡패의 ~로 놀 사람은 아니다. (하략)

‘머리’<sup>㉠</sup>과 ‘머리’<sup>㉡</sup>의 뜻풀이를 보면 ‘머리’<sup>㉠</sup>은 전문적 뜻풀이, ‘머리’<sup>㉡</sup>는 일반적 뜻풀이인데, 언어 사전에서는 구태여 ‘머리’<sup>㉠</sup>처럼 전문적 뜻풀이가 필요 없다고 여겨진다. ‘머리’<sup>㉡</sup>의 부가적 뜻풀이도 오히려 장황함만을 준다. 그러므로 ‘머리’<sup>㉠·㉡</sup>의 내용을 한꺼번에 풀이하여 “동물·사람의 목 위의 부분, 곤충 따위에서 배·가슴을 제외한 부분.”으로 하는 것이 간결한 뜻풀이가 된다. 전문적 뜻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일반적 뜻풀이 항목 다음에 뜻풀이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뜻 항목 배열이다.

이처럼 최대한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면서도 짧고 간단하게 뜻풀이하는 것이 간결성의 원칙이다.

2.4. 容易性

사전이 편찬되고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전이용자들이 보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이용자들이 일차적으로 사전을 찾는 이유는 단어의 뜻을 알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뜻풀이는 쉽게 해야 한다. 실제 언어 생활에서 자주 많이 쓰이는 어휘들을 이용하여 쉽게 뜻풀이를 함으로써 사전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보기로 한다.

(25) 하늘 ① 《천》 지평선(地平線)으로 한정되어 아득히 높고 멀리 궁륭상(穹窿狀)을 이루는 시계(視界)의 공간. 지평선상으로 보이는 반구형(半球形)의 것만이 아니라 지평선 밑으로 있을 다른 반구형을 포함하는 무한대의 공간으로서 공기의 분자(分子) 및 대기(大氣) 속에 부유하는 잔 먼지에 의하여 일광이 산란(散亂)되기 때문에 푸르게 보임. 한울. 상천(上天). 천(天). 태허(太虛). 민천(旻天). ♪ 맑게 갠 푸른 ~. ② 고대(古代)이 사상으로 천지 만물의 주재자(主宰者). 하느님. ♪ ~ 같이 민다. ③ 《중》 천공(天空)에 있어 신(神) 또는 천인(天人)·천사(天使)가 살며 청정무구(淸淨無垢)하다는 상상(想像)의 세계. 사람이 죽은 뒤 그 영혼이 올라가서 머무른다고 하는 곳. 천국(天國). 낙원(樂園). ♪ ~의 신(神). /~ 나라. ④ 자연의 이치(理致)·조화(造化)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인력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는 것. ⑤ 《불교》인간 이상의 것으로 삼승(三乘)의 과보(果報)를 얻은 성자(聖者). 곧, 모든 부처의 통칭. —『국어대사전』

(26) 하늘 ① 《천》 지평선(地平線) 위 까마득하게 높고 먼 궁륭형(穹窿形)의 시계(視界). 천문학에서는 지평선 위에 보이는 반구형(半球形)의 것만이 아니라 지평선 아래에도 있을 다른 반구형을 포함하는 무한대의 공간을 이룸. 공기의 분자(分子) 및 대기(大氣) 속에 떠 있는 잔 먼지에 의하여 일광이 산란(散亂)되기 때문에 푸르게 보임. 한울. 상천(上天)①. 천(天). 태허(太虛). ② 고대(古代)이 사상으로 천지 만물의 주재자(主宰者). ③ 《중》 천공(天空)에 있어 신(神) 또는 천인(天人)·천사(天使)가 살며 청정 무구(淸淨無垢)하다는 상상(想像)의 세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올라가서 머무른다고 믿어지는 곳. 천국(天國). 낙원(樂園). ④ 자연의 이치(理致)·조화(造化)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인력으로써는 어찌할 수 없는 것. ⑤ 《불》인간 이상의 것으로 삼승(三乘)의 과보(果報)를 얻은 성자(聖者). 곧 모든 부처를 두루 이르는 말. —『새우리말큰사전』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이 (25)·(26)을 보면 그 뜻풀이가 꼭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모두 전문적인 뜻풀이를 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인지하는 '하늘'에 대해 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名詞類의 경우에 어려운 낱말을 써서 뜻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늘'의 경우는 '사람의 머리 위로 보이는 넓은 공간'이라는 일반적 뜻풀이를 기본뜻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 뜻 項目부터 전문적인 풀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사전을 보더라도 '하늘'은 "sky : 1. the space we look up to from the earth, where we see the sun, moon and stars."<sup>22</sup>[해·달·별들을 보게 되는, 지상에서 위로 바라다 보이는 공간]으로 뜻풀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표제어보다 어려운 낱말을 사용하여 뜻풀이하거나, 일반적 뜻풀이를 제시하지 않고 전문적인 뜻풀이만을 하는 경우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낱말의 뜻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낱말을 이용하여 뜻풀이를 해야 한다.

특히 국어사전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때 중학교 졸업 이상이면 사전의 뜻풀이를 보고 그 단어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에 널리 쓰이는 기초 어휘에 관한 조사·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뜻풀이에 반영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뜻풀이 원칙은 서로 대립적이거나 별개의 것이 아니다. 상호 의존적이며 並立의이다. 어떤 어휘를 뜻풀이하더라도 이러한 네 가지 원칙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충실한 뜻풀이가 이루어질 것이다.

## IV. 결 론

필자는 우리 국어사전들에서 가장 먼저 시급히 연구하고 확립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뜻풀이라 여기고, 올바른 뜻풀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뜻풀이 원칙'을 마련하여 그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뜻풀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앞으로 사전 편찬시 지향해야 할 뜻풀이 원칙과 이에 따른 실제적인 뜻풀이 방

22) A.S. Hornby & A.P. Cowie(1974),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Oxford University Press, p.1482.

식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뜻풀이의 원칙으로 ① 체계성, ② 정확성, ③ 간결성, ④ 용이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체계성은 의미의 연관 관계에 따라 어휘군을 묶고, 기본 어휘의 기본 뜻을 확정 한 다음 기본 뜻을 중심으로 뜻풀이해야 함을 말하는데 계열 관계의 유의어·반의어, 복합 관계의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를 체계적으로 뜻풀이를 할 수 있게 한다.

우선 기본 어휘의 기본 뜻을 정하고, 관련 어휘들을 비교하면서 유의어는 그 의미의 유사성과 차이가 드러나도록 뜻풀이하고, 반의어는 反義가 뚜렷하도록 유표성에 따라 뜻풀이하며, 다의어와 동음이의어는 다의어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기본 뜻에서 확장된 뜻으로 배열하면서 뜻풀이해야 한다. 그리고 연어는 문맥 속의 의미와 정확한 문형 정보를 제공하여 뜻풀이의 체계성을 확보해 준다.

정확성은 뜻풀이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뜻의 내용이 사실에 맞아야 함을 말한다. 이는 사전의 교육적 기능을 생각할 때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간결성은 뜻풀이를 되도록 간단하고 짧게 함을 말한다. 동사와 형용사 따위는 하나의 문장 형식으로 풀이하고, 명사 따위는 정의 형식에 따라 "표정의항(표제항/올림말) = 정의항(의미 명시/뜻풀이)"의 기본 구조로 뜻풀이한다. 그러나 고유 명사, 부사, 관형사 등은 예외를 인정하여 메타언어적인 정의를 하도록 한다.

용이성은 실제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초 어휘를 주로 사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이함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어휘에 대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뜻풀이에 반영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국어사전의 표제어들을 규범적이며 일관성 있고 충실하게 뜻풀이하기 위해서는 뜻풀이 원칙을 마련하고 그 원칙에 따라 뜻풀이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辭典類〉

김광해(1987), 『類義語·反意語 辭典』, 도서출판 한샘.

김민수·고영근·임홍빈·이승재 편(1992),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 남영신(1995), 『국어 용례 사전』, 성안당.  
大阪外國語大學 朝鮮語研究室 編(1986), 『朝鮮語大辭典』, 角川書店.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신기철·신용철(1974), 『새우리말큰사전』, 삼성출판사.  
연변조선족자치주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1992), 『조선말사전』, 연변인민출판사.  
이기문 편(1996), 『동아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이희승 편(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임홍빈(1994), 『뉴앙스 풀이를 겸한 우리말 사전』, 아카데미 하우스.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구문 사전』, 두산동아.

### <著書>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이을환(1985), 『國語學研究』,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임지룡(1995),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정순기·리기원(1984), 『사전편찬리론 연구』, 사회과학출판사. [『북한어학 자료총서』 411(1989). 탑출판사.]

### 2. 논문

- 김광해(1992), “국어 사전의 뜻풀이와 유의어”,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김문창(1994), “국어대사전 편찬”, 『새국어생활』 제4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김슬옹(1993), “어휘평가에 따른 고교생용 사전 활용의 문제점”, 『함께 여는 국어교육』 제16호, 전국국어교사모임.  
김현권(1987), “언어 사전 정의의 유형과 문법 문제”, 『한글』 제196호, 한글학회.  
남기심(1987), “국어사전 현황과 그 편찬 방식에 대하여”, 『성곡논총』 제18집. (“사전편찬학연구” 제1집, (연세대 한국어 사전편찬회) 탑출판사.”에 재수록.)  
심재기(1989), “좋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 고찰”, 『애산학보』 7. [『국어학 자료논문집』 제5집 어휘론, 대체각.]  
——(1994), “국어 어휘의미론”,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양명희(1995), “종합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 I”,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양인석(1994), “어휘 의미론”,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윤용선(1995), “종합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기동(1988), "사전 뜻풀이의 검토", 『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탑출판사.
- (1992), "다의 구분과 순서의 문제",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1994), "인지문법",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 (1995), "낱말 풀이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사전편찬학연구』 제5·6집, 탑출판사.
- 이기문(1992), "國語辭典의 語源 表示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제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병근(1990), "사전 및 사전학", 『국어 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1992), "사전 정의의 유형과 원칙",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상복(1988), "국어사전 편찬과 문법 형태소의 처리-조사와 연결어미의 기술을 중심으로-", 『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탑출판사.
- 이상섭(1987),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편찬 원칙과 형성 과정", 『사전편찬학연구』 제1집, 탑출판사.
- (1988), "몽치 언어학적으로 본 사전 편찬의 실제 문제", 『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탑출판사.
- (1989), "현대 사전 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인문과학』 62, 연세대학교, (『사전편찬학연구』 제3집 재수록.)
- (1991), "몽치 언어학: 사전 편찬의 필수적 개념", 『사전편찬학연구』 제3집, 탑출판사.
- (1992), "전산 편찬학의 개념과 한국적 실제", 『사전편찬학연구』 제4집, 탑출판사.
- (1995-), "말뭉치: 그 개념과 구현", 『사전편찬학연구』 제5·6집, 탑출판사.
- (1995-), "몽치 언어학의 기본 전제", 『사전편찬학연구』 제5·6집, 탑출판사.
- 이용주(1986), "사전 주석에 대하여", 『국어생활』 제7호, 국어연구소.
- 이익환(1988), "어휘의 의미 변천과 사전", 『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탑출판사.
- (1992), "국어 사전 뜻풀이와 용례",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이정민(1994), "언어와 인지",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문화사.
- 임홍빈(1993), "복한 사전의 뜻풀이", 『새국어생활』 제3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정호성(1995), "종합국어대사전의 집필 지침Ⅱ",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최규일(1988), "우리말 {뜻;의} 의미 기능", 『국어국문학』 100호, 국어국문학회.
- (1995), "국어사전 뜻풀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解放 50주년 세계 속의 韓國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1996), "국어사전 표제어의 뜻풀이", 『국어국문학논총』, 태학사.
- 홍운표(1992), "古語의 풀이말", 『새국어생활』 제2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 홍재성(1986),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 『국어생활』 7, 국어연구소.

### 국어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관하여

- (1987ㄱ), “현대 한국어 사전과 자동사/타동사 용법의 구분”, 『성곡논총』 제18집.(『사전편찬학연구』 제1집 재수록.)
- (1987ㄴ), “한국어 사전에서의 동사 항목의 기술과 통사 정보”, 『인문과학(연세대)』 57.(『사전편찬학연구』 제2집 재수록.)
- (1989), “한국어 자동사/타동사 구문의 구별과 사전-이른바 동족 목적보어 구문의 경우”, 『동방학지』 63, 연세대 국학연구원.(『사전편찬학연구』 제3집 재수록.)
- (1992),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제2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1998), “동사·형용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제8권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Hartmann, R.R.K, ed.(1983),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Academic Press.

Lyons, John.(1977), *Semantics I, 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